

자료명	제3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엠바고	5월 9일(火)자 夕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5/9(火) 07:30부터)
문의처	ESG경영실 윤철민 실장(010-2269-9842), 김범준 과장(010-2796-0015)

ESG 아젠다그룹, “국내 ESG평가 신뢰도 높여야!”

- 商議, 9일 ‘제3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ESG평가 등 최근 ESG 현안 논의
-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ESG평가정보 공개 강화·만족도 조사 통해 ESG평가시장 개선해야”
- 윤태수 기재부 팀장 “글로벌 ESG 제도화로 국내 ESG경쟁력 제고 필요...민간 ESG생태계 육성 중점지원”
- 이준희 지평 그룹장 “국제개발협력(ODA)과 기업 ESG활동 연계 통해 개도국 등 신시장 개척 기회 확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일 오전 ‘제3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를 개최하고 글로벌 ESG 확산 대응, ESG평가 등 최근 ESG 이슈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원 기재부 미래전략국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SG평가정보 공개 강화·만족도 조사 통해 ESG평가시장 개선해야

‘최신 ESG평가 동향과 대응방안’ 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글로벌 ESG 평가사의 경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ESG 평가사의 신뢰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그리고 이해관계상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 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정보를 비롯한 ESG 평가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평가사는 공적자금 집행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평가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에서 ESG 평가사에 대한 신뢰성 항목을 포함하는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글로벌 ESG 확산 및 정부 대응방안’ 을 발표한 윤태수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 팀장은 “최근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 제정, EU의 지속가능한 기업실사지침 마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며, “정부는 민간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어 윤 팀장은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며, “이러한 과정에서 ESG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고 말했다.

국제개발협력(ODA)과 기업 ESG활동 연계 통해 개도국 등 신시장 개척 기회 확보

마지막으로 ‘개발협력과 ESG 연계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은 “ESG 패러다임이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금융과 민간 기업들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며,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개발협력기관들도 민간분야의 참여(PSE : Private Sector Engagement)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룹장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민간 기업이 ESG경영의 일환으로 동참할 경우 현지 정부 및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며, “저성장 리스크 시대에 개발도상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자사의 산업 및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여러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ESG 제도화, ESG평가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이 ESG경영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승원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ESG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구축하였다” 며, “탄소중립,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구축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과 대·중소기업 ESG 경영 협력 등이 중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각종 ESG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 ESG평가기관의 신뢰성 부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ESG평가시장을 비롯한 국내 ESG 인프라 및 생태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참고	‘제3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행사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5.9(화) 07:30~09:30, 상의회관 EC ROOM(1층)

- 주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원 기재부 미래전략국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 이혁노 현대자동차그룹 상무, 이방실 SK하이닉스 상무, 조성욱 롯데지주 상무, 최 영 포스코 상무, 장연성 한화 상무, 한광희 삼성SDI 그룹장, 신성필 LG디스플레이 ESG담당, 한승아 CJ 상무, 박경호 대한항공 상무, 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상무, 서희종 대우건설 상무,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 조정훈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오정택 하나은행 부행장 등

- 진행순서
 - 07:30~07:40 인사말씀(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원 기재부 국장)
 - 07:40~08:10 주제발표
 - ① 글로벌 ESG 확산 및 정부 대응방안(윤태수 기재부 팀장)
 - ② ESG평가 현황과 개선방안(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 ③ 개발협력과 ESG 연계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이준희 지평 그룹장)
 - 08:10~09:25 자유토론(참석자 전원)
 - 09:25~09:30 마무리 말씀(이승원 기재부 국장)